



묵향에 실은 성안사람들 삶과 풍경

산지천갤러리 기획전
한글서예가 10명 참여
원도심 등 조명한 글씨
전통에 현대 기법 더해



오민준의 '희망'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의 기억을 묵향에 담아낸 전시가 산지천에 있는 문화공간에서 열린다. 이달 8일부터 산지천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성안사람들-원도심의 흔적' 전시다.

산지천갤러리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과정에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녹수장, 금성장 두 여관 건물을 제주시가 매입해 재생한 공간이다. 2017년 12월 개관해 김수남 기증 사진 상설 전시와 산지천 교류의 지역성을 받

영한 기획전 등으로 관람객들과 만나왔다. 제주시 위탁을 받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처음으로 한글서예가들이 꾸민다. 도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0명의 서예가가 참여해 산지천을 포함한 제주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원도심을 재조명하고 제주정신과 제주목사의 흔적을 주제로 한글서예 작품을 선보인다. '성안'은 제주 사람들이 지금의 원도심을 일컬었던 명칭 중 하나다.

출품작은 조종숙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현병찬의 '탐라순력도', 오민준의 '삶', 유혜선의 '김정 1-과감하게' 등이다. 김수애, 김희열, 양춘희, 오금림, 최명선, 최명자의 작품도 걸린다. 이들은 전통적인 한글서예의 멋스러움에 캘리그래피 기법을 더해 한글 서예의 확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시는 산지천갤러리 기획전실실 2-3층에서 이달 21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64)725-1208. 전신회기자

선물 같은 가을 그림 여행 3인과 만남

한라일보 갤러리이디 초대
고은·김성오·이미선 참여
이달 11일 작가와의 대화



고은



김성오



이미선

이 계절에 선물 같은 그림 여행을 준비한 3명의 제주 작가들과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한라일보 갤러리이디(ED) 세 번째 초대전의 주인공인 고은·김성오·이미선 작가와의 만남이다.

이달 11일 오후 3시부터 한라일보 사옥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을여행'이란 제목으로 마련된 초대전에 나온 작품을 중심으로 작업 배경 등을 직접 작가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3인 3색' 각기 다른 풍경 속에 은화한 색채로 이 시대에 위로로 건네는 화면을 공통적으로 빛어낸 작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창작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이끈다.

고은 작가는 한국화의 전통 채색 방법을 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제주 자연과 풍경에 따뜻한 감성을 입혀왔다. 이번 초대전에는 장지에 분채로 그린 '바다주기' 연작 등 쌀쌀한 일상에 온기를 더해줄 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김성오 작가는 바탕에 깔린 색을 칼끝으로 긁어내기를 반복하면서 선들의 집합을 통한 생명력을 전달한다. 이 전시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이글거리는 불구덩이를 심장에 품고

있는 듯한 화산섬 모습을 소재로 '불의 꽃', '황금정원' 등을 펼쳐냈다.

이미선 작가는 가는 붓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대상을 정교하게 그리는 공필화가로 이번에는 한층 평온한 화풍으로 제주 자연을 담았다. '치유의 정원-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의 정원-눈부신 봄날' 등에 우리가 마침내 다다를 희망이 보인다.

3인 초대전은 11월 27일까지 계속된다. 작가와의 만남 예약 문의는 750-2543. 전신회기자 sunny@ihalla.com

제주프랑스영화제 온라인으로 즐겨요

이달 5-9일 플랫폼 활용
개·폐막식도 비대면 방식
단편국제경쟁 18편 본선

개막식은 첫날 오후 5시부터 제주목관아에서 비대면으로 치른다. 유튜브로 중계되는 개막 행사에선 제주농요보존회의 일노래 특별공연도 예정됐다.

단편국제경쟁작은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운영하는 프렌치캐스트(tv.naver.com/frenchcast)에서 무료 상영한다. 405편의 응모작 중에서 예심을 통과한 18편을 선보인다.

장편과 비경쟁 단편 작품은 웨이브(www.wavve.com)에서 상영된다. 단편은 웨이브 회원(무료)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볼 수 있다.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회장 고영림)가 주최하고 제주프랑스영화제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제주프랑스영화제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상영작은 월드프리미어 등 장·단편 포함 총 36편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극장 상영을 최소화하는 대신 동영상 채널 등을 활용해 관객들과 만난다.

유튜브 중계할 씨네토크는 '제주의 감동들이 읽어주는 프랑스영화'를 주제로 제주사랑방(고씨주택)에서 진행된다. 양윤모 평론가와 양윤호·임찬익·모지은·고훈·문재용·부은주 감독이 참여한다.

일부 작품은 극장에 걸린다. CGV 제주에서 '신의 은총으로', '세이프 오브 뮤직: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썸원 썸웨어', '소년 아메드' 등 4편을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폐막식은 마지막날 오후 6시부터 제주사랑방에서 비대면으로 열린다. 이달 단편국제경쟁 4개 부문 수상작을 유튜브로 중계로 발표하게 된다.

영화제 홈페이지(www.jejufff.org)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있다. 문의 070-4548-5367. 전신회기자

서귀포합창단과 함께 세계 음악여행

오늘 66회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은 녹화 중계

공연은 세계 각국의 합창곡으로 꾸며졌다.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이티, 미국 등으로 청중을 이끈다.

무반주 현대합창 순서에선 인도네시아의 자장가 선율을 새롭게 편곡한 호수 엘베르딘의 곡 등을 들을 수 있다. 세계민속합창으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아이티의 민속음악을 선사한다. 가스펠 등 흑인영가도 선곡했다.

한국합창에서는 '제주 수선화'가 서귀포합창단의 위촉곡으로 초연된다. '제주 수선화'는 김순이 시인의 시에 윤하준 작곡가가 곡을 붙인 합창곡이다. 가요로 귀익은 '미인'(김준범 편곡)과 '빈대떡 신사'(문현주 편곡), 첫사랑의 설렘을 표현한 김효근의 '첫사랑'(정남규 편곡)도 노래한다.

공연장에 입장 가능한 인원은 130명이다. 공연 실황은 이달 12일 오후 3시부터 서귀포예술단, 서귀포시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신회기자

'제주 생활사'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

한그루출판사 2016년 출간
저자는 제주 고광민 연구자

제주 지역 출판사인 한그루(대표 김영훈)에서 펴낸 고광민의 '제주 생활사'가 2020년 제3회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에 뽑혔다.

이번 출판대상 공모에는 총 207개 출판사에서 펴낸 813종의 도서가 참여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나오지 않았고 8종의 본상 도서와 2종의 특별상 수상 도서, 공로상이 선정됐다.

본상에 오른 '제주 생활사'는 2016년 출간된 도서로 서민 생활사 연구자인 저자의 제주 생활사 연구를 담고 있다. 주류의 역사나 정치사 회사가 아닌, 고단한 생업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꾸려나갔던 옛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전한다.

이 책을 묶어낸 한그루 출판사는 2008년 창립했다. 제주에 뿌리를 둔 출판사로 이 지역 저자들의 인문 분야 저작들을 꾸준히 출간해왔다. 고광민 연구자는 그동안 '제주도의 생



저자 고광민



김영훈 대표

산기술과 민속', '제주도포구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롯데출판문화대상 본상 저자와 출판사에는 각각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26일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신회기자

문화가 쏘지

어르신 이야기 뮤지컬 공연

제주멋글씨회 회원전

창작활동 기획서 3차 공모

60세 이상 제주도민들이 참여한 뮤지컬 '문고지GO!!'가 이달 6일 오후 7시30분 세이레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을 받는 섬아이청소년뮤지컬의 '청춘 뮤지컬 나의 라라랜드' 교육사업으로 탄생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다. 치질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모이게 된 환자들이 사소한 다름으로 서로가 처한 상황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를 그렸다. 문의 753-8996.

캘리그래피예술 제주멋글씨회의 다섯 번째 회원전 '사랑이 다예요'가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사랑의 감성을 담아낸 소박한 작품들로 채워진다. 제주멋글씨회의 회장 김초은 작가는 "코로나19로 흔들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이라고 했다. 전시 기간엔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센터 제주지회 회원들의 디자인특별전도 함께 마련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창작활동 준비를 지원하는 기획서 3차 공모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예술장자·발표활동 기획서 지원,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주제 연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창의주제 연구계획 지원 등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금은 예술활동기획 건당 50만원,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연구계획 지원 건당 100만원이다. 신청은 이달 10일까지. 문의 800-9132.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